



그래도 우리는 물살을 가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불참 선언에 이어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연기 주장이 나오며 2020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24일 충북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한국 여자조정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베테랑 용병 영입...공격 옵션 '업그레йд'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 합류...공격형 미드필더 활용
러시아 월드컵·코파아메리카 등 A매치 67경기 15골 기록
드리블·위치선정·침투패스 뛰어난...펠리페와 호흡 기대

광주FC가 12년차 베테랑 외국인 공격수 마르코 우레나(Marcos Urena·30)를 영입, K리그1에서 보다 다양한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스쿼드를 완성했다. K리그1 복귀를 앞두고 김창수, 김효기 등 베테랑들을 영입, 기존 젊은 선수들로 주축을 이룬 팀에 '경험'을 부가시킨 광주FC는 마지막 외국인 선수도 베테랑을 선택, 파이널A 도전을 현실화했다.

광주FC는 팀의 공격을 책임질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 우레나를 영

입, 2020시즌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르코는 코스타리카(피파랭킹 46위) 국가대표이자 12년차 베테랑 공격수다. 뛰어난 드리블과 스피드는 물론, 위치선정·침투패스·결정력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08년 코스타리카 1부 알라후엘렌세에서 프로에 데뷔한 마르코는 이듬해 국가대표로 발탁, 2014코파센트로아메리카나(우승), 2014브라질 월드컵(8강), 2016 코파아메리카,

2017월드컵, 2018러시아 월드컵 등에서 활약하며 67경기 15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FK쿠반크라스노다르(러시아 1부), FC미틸란드와 FC브린비(덴마크 1부)에서 유럽 리그와 유로파리그를 경험했으며, 미국 1부리그인 메이저리그사커(SJ 어스퀘이크스, 로스앤젤레스FC) 무대를 누비기도 했다.

최근엔 데뷔 팀인 알라후엘렌세로 복귀해 2019-2020시즌 31경기 12골을 기록, 절정의 감각을 과시했다.



마르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색해왔던 박진섭 감독은 선수 등록기한 이틀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마르코를 선택했다. 지난주 광주에 도착한 마르코는 시차 적응을 마친 뒤 23일과 24일 본격적으로 팀 훈련을 함께 했다.

박진섭 감독은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마르코에 대해 "지난주는 시차도 있고 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가볍게 훈련했고 어제와 오늘 정상적으로 훈련했다"며 "코스타리카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경기운영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르코는 득점력뿐 아니라 왕성한 움직임과 기술, 넓은 시야로 동료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다. 펠리페와의 호흡이 기대된다"며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K리그1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

록 반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유니폼을 입은 마르코는 "아시아 무대, K리그 진출은 축구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다"며 "근근한 조직력과 '원팀' 플레이를 구사하는 광주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이라 생각한다. K리그에서의 도전이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FC 관계자는 "마르코는 짧은 시간 봤지만 프로다운 모습이 엿보였다.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실전에서의 집중도가 남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르코의 영입으로 인해 박진섭 감독의 전술 폭이 넓어지고 더 다양해질 수 있게 됐다. 파이널A 싸움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프로야구 코로나19 위기 뚫고 개막 '기지개'

D데이 '4월 20일' 이후 설정
선수들 페이스 조절 큰 도움
내달 7일부터 구단간 평가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프로야구가 2020년 시즌을 시작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과 KBO 사무국은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규리그 개막과 관련한 중요한 2가지 결정에 합의했다.

먼저 개막일을 4월 20일 이후로 설정했다. 두 번째는 4월 7일부터 구단 간 연습 경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리그 개막에 필요한 준비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KBO 이사회가 4월 중으로 미뤄던 개막 시점을 4월 20일 이후로 못 박은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한 정규리그 개막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은 선수들의 페이스 조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선수는 정규리그 개막에 초점을 맞춰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올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시범경기가 취소된 데 이어 개막일마저

오리무중에 빠졌다.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란 단어가 불거졌어도 4월 20일 이후에 시즌의 막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선수들에게 시즌 준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동기도 새롭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특히 각 팀의 성적을 좌우할 선발 투수들이 날씨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체 청백전에 국한했던 평가전도 이제 다른 구단과의 연습경기로 보폭을 넓힌다.

KBO 사무국은 4월 7일 이후 구단끼리 무관중 연습 경기를 벌이도록 일정을 짜고 방송사와 협의해 TV 생중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팬은 구단이 자체로 중계하는 청백전을 유무선으로 지켜본다. KBO 사무국은 이런 야구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고자 초유의 '무관중 연습경기 TV 생중계'를 추진한다.

그간 같은 팀 선수끼리 벌이는 평가전에 지루해하던 각 팀 선수와 지도자들은 겨우내 실력을 갈고닦은 경쟁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정규 시즌과 맞먹는 긴장감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출범 23년...프로농구 첫 '시즌 조기 종료'

프로농구가 1997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을 도중에 종료했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4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5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잔여 경기와 플레이오프까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 이후

24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시즌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하게 됐다.

KBL은 1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리그 진행을 중단했고, 29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사회를 통해 남은 일정도 모두 치르지 않기로 했다.

정규리그가 중단된 2월 29일까지 28승 15패로 공동 1위를 달린 서울

SK와 원주 DB가 그대로 공동 1위로 정규리그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3위는 26승 17패의 안양 KGC인삼공사다. 또 KBL은 20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어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사상 세 번째로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한 경기 단체가 됐다. /연합뉴스

전남 청소년 스포츠 생활화 앞장

올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485개 운영
경기·경남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많아

전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485개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 한체육회의 2020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선정 결과, 전남은 학교안 380개, 전남이 345개, 부산 273개, 서울 244개, 대구 236개, 충남 218개, 경북 207개, 전북 153개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밖은 총 1,483개로 전남이 155개로 최다이며 경기 142개, 전남 140개, 경기 127개, 경북 117개, 서울 115개, 부산 110개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무전남체육회장은 "전남도 교육청 및 도내 시·군체육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학교 선정 협의 및 안내, 강사교육 운영, 사업비 교부, 실적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엘리트 선수육성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345개로 초동이 199개, 중동이 94개, 고동이 46개, 특수학교가 6개다. 학교밖은 140개로 공공민간이 92개, 공공스포츠클럽이 48개다.

전국적으로는 학교안 총 3,434개 중 경기가 429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380개, 전남이 345개, 부산 273개, 서울 244개, 대구 236개, 충남 218개, 경북 207개, 전북 153개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밖은 총 1,483개로 전남이 155개로 최다이며 경기 142개, 전남 140개, 경기 127개, 경북 117개, 서울 115개, 부산 110개 순으로 나타났다.